

[청년화제]

속마음 나눌 수 있는 상대, 가족보다는 친한 친구!

부모와 말하면 걱정할까 봐... 친구끼리는 더욱 잘 공감할 수 있어

사회교제는 사람의 기본적인 수요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사회교제 방식에도 신속한 변화가 생겼다. 가상화, 패속화, 간단화의 사회교제 방식은 편리해 가려온 동시에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관계가 더욱 얇아졌다고 생각하게 한다.

일전, 중국청년보사 사회조사중심과 설문넷에서 1,333명의 청년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95.2%의 응답자가 하소연을 털어놓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계할 사람이 6명 이내라고 밝혔다. 그중 4.2%의 응답자는 연계할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밝혔고 4.8%의 응답자는 7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나의 위젯 주소록에는 몇백명이 있지만 평소엔 자주 연계하는 사람은 10명 쯤이야. 관건적인 시각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5명 정도일 것이다.” 북경의 모 대학에 다니는 장핑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은 가족에게 말하는 경우가 적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부모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끼리 상대방의 정서나 느낌을 더욱 잘 이해하고 더욱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하소연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청하는 주요 상대는 누구일까? 조사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66.5%로 기타 선택 사항보다 훨씬 높고 배우자

가 45.5%로 2위를 차지했다. 부모 등 연령자가 30.2%, 동료, 동창이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의 형제자매가 18.8%, 상사, 선생님이 11.3%, 심리의사가 8.2%, 스스로 소화가 5.9%를 차지했다.

“인생의 단계마다 몇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계하는 친한 친구는 많지 않다.” 항주에서 근무하는 ‘90 후’ 왕호삼은 생활환경과 인생 단계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의 교류 상대도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예하면 학교에 다닐 때에는 기숙사의 친구와 더 가깝고 사업에 참가한 후에는 동료와의 교류가 많아

교제의 시간과 공간의 벽을 없앴고 이로부터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구축 경로와 유형도 더욱 풍부해졌다. 하지만 사회와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인간관계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관계의 안정성이 내려갔으며 관계의 강도도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청년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지지 강도도 함께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화중과학기술대학 사회학원 교수 호봉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지지망은 공식과 비공식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인 사회지지망은 정부, 단위, 각종 군중단체 등으로 최근년간 국가는 청년들의 성장에 많은 지지를 제공했는바 이 면의 지지는 약해지지 않았다. 비공식적인 사회지지망은 지역, 업무 등을 통해 형성된 친척, 친구, 동창, 동료 등을 포함하는데 사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개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회지지망의 지지 빈도와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회발전의 객관적인 원인과도 개인이 주동적으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조사 응답자중 남성이 45.2%, 여성이 54.8%를 차지하고 ‘00 후’가 16.6%, ‘95 후’가 29.9%, ‘90 후’가 34.8%, ‘85 후’가 18.7%를 차지했다. / 중국청년보



최근 몇년간 야외 탐험 스포츠의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도보, 등산, 자전거 타기, 캠핑 등 야외 활동에 참여하는 사진과 동영상 많이 공유하는데 멋진 스포츠 의류와 장려하고 기이한 아름다운 경치가 어우러져 일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무작정 떠나’는 충동이 싹트게 한다.

야외 스포츠 자체는 심신건강에 유익한 운동 방식이지만 만약 충동만으로 제멋대로 무모하게 일정한 위험성을 가진 야외 탐험에 참가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응급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경솔하게 가는 것은 야외 스포츠 초보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이다. 일반적인 관광보다 야외 탐험은 자극과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다. 반면에 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만약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자신의 운동 능력, 신체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며 목적지의 지리 환경, 날씨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탐험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만약 돌발적인 상황에 처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 전문 인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배웅하도록 준비하며 긴급 철수 로선도 미리 계획한다. 하지만 일부 야외 스포츠 초보자들은 오로지 왕흥지로만 알고 찾아가며 자연 속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과 감지가 아예 없다. 심지어 어떤 녀성들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치마와 하이힐을 신고 도보를 하는데 이런 행위는 틀림없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걱정스러운 것은 야외 탐험 스포츠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 규칙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야외 탐험 스포츠 초보자들이 길을 잃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조난을 당하는 사고의 배후에는 법률법규와 관련 안전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존재한다. 이는 자연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야외 탐험 스포츠의 원칙을 깨뜨렸다. 일부 초보 애호가들은 ‘평범한 길을 걷지 않는’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 임의로 미개발, 미개방 관광지를 찾는데 일단 조난을 당하면 막대한 공공자원을 소모하여 구조해야 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도 이로 인해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한계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용기와 정신도 존중하지만 생명은 더욱더 존중하고 경외해야 한다. 청년들은 자연에 대해 탐색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 지식을 많이 배우며 야외에서의 자기구조 기능을 많이 숙지하고 가능한 한 전문인술자의 지도하에 야외 탐험을 해야 한다. / 중국청년보

공원에서 혼인등록?

전국 ‘공원식’ 혼인등록 장소 270 여개 마련돼

“결혼증을 어느 공원에서 발급받았어?” 이런 물음을 주고받는 결혼 새내기들이 앞으로 많아질 조짐이다.

일전 ‘민정 5년’ 계열 전문 소식공개회에서 민정부 관계자는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혼인등록기관을 공원 등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마련해 결혼 당사자들에게 보다 량질의 봉사과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표했다. 현재 전국에는 각류 ‘공원식’ 혼인등록장소가 270 여개 마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도 고신구 계계(桂溪) 생태공원 ‘공원식 혼인등록처’에서 ‘결혼증’을 받은 부부

상해 강포공원, 웅안 열용공원, 심양 식물원, 성도 천부부용원... 꽃들이 만발한 공원에서 결혼을 앞둔 신인들의 ‘행복의 도가니’로 각광받는다. 주변 어디라 할 것 없이 꽃천지이고 새파란 잔디가 펼쳐진 이런 곳들은 공기가 상쾌하고 행복의 기운이 감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즐거우면 되지 결혼증을 받는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한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혼증은 법적 증서로 혼인 약속에 무게를 두지만 같은 값에 다홍치마라고 풍경이 수려하고 환경이 마음에 들며 정서를 한껏 고조시킬 수 있는 공원 등 곳에서 혼인등록을 한다면 더 분위기가 있고 의식감이 있으며 상대방의 마음도 더 사로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시대가 달라졌고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 달라졌다. 과거 기능성을 추구하던 데로부터 기념성을 추구하는 데로 바뀐 것이다. 그들은 ‘순간’을 더 중히 여기고 ‘추억단편’을 더 좋아한다. 결혼증을 받는 이 특수한 날을 더욱 기념 의의가 있는 곳에서 보낸다면 그 ‘순간’은 더 아름다운 ‘추억단편’이 되어 ‘평생’의 승낙과 약속

으로 오래동안 이어질 것이다. 결혼증은 간단한 것 같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새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민정기관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청년들의 추구에 호응해 주동적으로 사무대정을 벗어나 경치 좋은 공원으로 사무처를 옮기는 것은 정부부서의 완벽한 연장인 것이다. 사무지점의 변화와 변신은 사람들에게 따뜻한함과 인문 배려의 뜻을 전달한다. / 광명일보

공원에 더 뜻깊은 곳을 선택하는 지역들도 있다. 절강성 해염현은 ‘왕홍 펍수 방문지’인 심양공정문화산업단지, 하남성 상채현은 국가농촌산업융합발전시범단지에, 중경시 량강신구는 ‘중경의 눈’ 대관람차 아래에 혼인등록처를 마련했고 광서 류주시 류남구는 열차칸에 마련해 ‘행복호’가 행복 여행을 시작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결혼증 발급 장소의 변화에도 혼인등록 ‘다성간 일괄처리’ 개혁이 혼인등록을 더 편리하게 하고 새시대 혼인풍속 개혁 역시 문명하고 건전한 결혼풍속을 다그쳐 형성하고 있다. ‘간소하지만 간단하지 않고 량면적이지만 량비하지 않는’ 것이 갈수록 많은 청년들의 추구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의 공공봉사는 작은 데서 큰 것이 보여지며 대중들의 체험, 감수에 더 중시를 돌리고 있다. 그 배후에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실천이 깔려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감과 인문 배려를 쏟아부으며 제도를 더 개선한다면 이 시대의 행복 혼인에 색채가 더해질 것이다. / 광명일보

이 지역, 결혼 휴가 30 일

《산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20일 산서성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이며 대변인인 리서병은 “산서성에서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성급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 개정을 완료했는바 결혼 휴가는 30일, 출산장려정책에 부합되면 출산 휴가는 60일 연장하고 남자측 돌봄 휴가는 15일,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매년 육아 휴가는 15일이며 부부가 속한 단위는 매달 최소 200원의 영

유아 보육 비용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출산의료지원 방면에서 2024년 10월 1일부터 정자채취, 난자채취, 인공수정 등 13가지 치료성 보조성공률 의료서비스 항목을 산서성 기본의료보험금 지불 범위에 포함시킨다. 세수지원 방면에서 3세 이하 영유아 돌봄서비스 비용을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정책에 포함시킨다. / 인민넷 - 조문판

알아두면 좋은 구직, 창업 정책들

구직, 창업에서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 일회성 구직 보조금, 일회성 창업 보조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 정책 대상은 기업이다. 졸업년도 및 학교를 떠난 지 2년내에 미취업인 대학졸업생 및 16세-24세 등록실업청년을 모집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실업, 공상, 종업원 양로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인당 1,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표준에 따라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책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일회성 구직 보조금

졸업학년에 적극적으로 구직, 창

업한 최저생계보장가정, 령취업가정, 재빈곤 방지 감시중점대상 가정과 극빈인원중의 대학졸업생, 장애인 및 국가장학(助学) 대출을 받은 대학졸업생에게 일회성 구직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책 기준은 각 지방에서 현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이 정책은 장기간 집행한다.

일회성 창업 보조금

처음으로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설립하거나 개인 경영에 종사하고 창립한 기업 또는 개인공공사업자 공상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정상 운영을 한 경우, 대학교를 떠난 지 2년내의 대학졸업생, 취업애로자, 귀향 농민공 등에 대하여 일회성 창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책 기준은 각 지방에서 현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이 정책은 장기간 집행한다. / 중국정부넷

백산변경관리지대 합동결혼식 가져

일전, 길림백산변경관리지대는 제 4회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신혼경찰들은 현장에 온 손님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새생활의 시작을 알렸다. / 길림일보

